

대학박물관의 학술적 기능과 사명

이 용 조*

차 례

머 리 말

I. 지표조사

II. 발굴조사

(1) 전체적인 발굴현황

(2) 기간별 발굴현황

(3) 유적의 성격에 따른 발굴현황

(4) 유적의 시대별 발굴현황

(5) 행정구역별 발굴현황

III. 각 대학박물관별 조사활동 현황

IV. 학술적 간행물 발간

맺 음 말

머 리 말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역사는 1934년 보성전문학교를 그 시작으로 잡을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보성전문학교는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세워져, 우리나라 사람이 학교의 살림을 꾸려 온 민족의 대학이다. 이 학교에서는 민족문화를 대학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손진태교수의 노력에 의하여 민속자료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를 수집·전시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대학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이제는 58개교(한국대학박물관협회 가입회원교기준)에 이르고 있고 매년 2~3개교가 새로이 가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박물관의 역할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교육적인 측면의 의미는 대학박물관의 대내적인 활동이 주축을 이루며, 대학박물관의 근본적인 사명과 일치한다. 이는 문화재를 수집·보존하고 전시하여 학생들의 관람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대학박물관의 활동은 거의 대외적인 것으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들 수 있고, 또 도록이나 소장품목록을 간행하여 그 연구활동을 발표하는 것이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대학박물관의 설치기준 근거가 삭제된 이 시점에서, 대학박물관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을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학박물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학술행사는 앞으로의 대학박물관 진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각 대학박물관들의 조사활동을 지표조사·발굴조사를 통계별로 분석을 시도해 보며, 이것을 통한 학술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지 표 조 사

지표조사는 전체적인 문화재의 현상파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표조사에는 관련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교육의 연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바로 교육적인 활동으로 해석되어서 실제로 대학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는 관련학과 학생들의 도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박물관협회에서 각 대학박물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설문지에 돌아온 최신자료를 종합하여 1985년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실시된 지표조사는 28개대학에서 10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지표조사기관의 회수

조사기관 (대학박물관가나다순)	조사회수	조사기관 (대학박물관가나다순)	조사회수
강원대학교	2	안동대학교	2
경기대학교	1	영남대학교	7
경북대학교	1	원광대학교	1
경상대학교	3	이화여자대학교	1
제명대학교	5	인하대학교	1
공주사범대학	1	전남대학교	3
국민대학교	5	전북대학교	4
군산대학교	1	창원대학교	5
단국대학교	8	청주대학교	4
동아대학교	4	충남대학교	4
목포대학교	10	충북대학교	12
부산대학교	4	한양대학교	1
부산여자대학	4	효성여자대학교	11
서울대학교	1		
승실대학교	2	28개교	108

〈표 1〉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실시한 대학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12회이고, 다음은 효성여자대학교 박물관 11회, 목포대학 박물관 10회, 영남대학교 박물관 7회 등의 순서이다.

그런데 이 지표조사는 크게 보아 대학 자체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와 정부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사를 대학박물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대학자체에서 실시한 조사로

는 1960년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한강유역의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며, 그 다음으로는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안동문화권내 지표조사와 196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몇 개의 시·군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1980년에 실시한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안동문화권 지표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삼국시대의 강역문제 규명 및 불교미술 자료의 파악과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찾은 단양 적성비·중원 고구려비는 대학박물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가운데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해석된다.

이렇게 대학박물관에서 조사실시한 여러 지표조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기관과 연도·조사명

조 사 연 도	조사기관(대학박물관)	조 사 명
1963~73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안동문화권내 지표조사
1975~78	진 북 대 학 교	전주·완주지역 문화재조사
1975	송 전 대 학 교	시흥·안양지구 유적조사
1975~77	충 북 대 학 교	대청댐 수몰지역 지표조사
1977	부 산 대 학 교	부산시 문화재 지표조사
1977	청 주 대 학 교	충주댐 수몰지역 유적·유물조사
1978	계 명 대 학 교	고령군 유적 지표조사
1978	공 주 사 법 대 학 교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공주편)
1978	송 전 대 학 교	백제문화권 지표조사(양주·쌍주군)
1978	제 주 대 학 교	제주 조천면 석기시대 산포지조사
1978	충 남 대 학 교	백제문화권 유적조사
1979	경 북 대 학 교	경상북도 문화재 지표조사
1979	전 북 대 학 교	순창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1979	충 남 대 학 교	고대산성 분포조사
1979~80	충 북 대 학 교	충주댐 수몰지역 지표조사
1979~81	효 성 여 자 대 학 교	신라가야토기 요지조사
1980	계 명 대 학 교	성주군 유적 지표조사
1980	영 남 대 학 교	안동문화권 지표조사
1980	영 남 대 학 교	경산지역 지표조사
1980	전 남 대 학 교	동북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0	충 북 대 학 교	우암산지역 유적 지표조사
1981	계 명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구미시·선산·금릉군)
1981	동 아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고성군)
1981	부 산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김해·밀양군)
1981	창 원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함안군)
1981	충 북 대 학 교	중원문화권 기초조사
1981	충 북 대 학 교	월악산지역 지표조사
1982	동 아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울산시·울주·양산군)
1982	부 산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삼천포시·사천군)
1982~83	전 북 대 학 교	남원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1982	창 원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마산·창원시·의창군)
1982	청 주 대 학 교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단양군)
1982	충 북 대 학 교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제천시·제원군)
1982	충 북 대 학 교	중원문화권 유적 지표조사(옥천·영동군)
1982	충 북 대 학 교	상당산성 지표조사
1983	강 원 대 학 교	춘천 중도유적 지표조사
1983	동 아 대 학 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충주시·남해·통영군)
1983	북 포 대 학 교	중서부고도문화권 지표조사(해남·원도·진도군)

조사연도	조사기관(대학박물관)	조사명
1983	부산여자대학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진해시·거제군)
1983	영남대학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구미시·선산군)
1983~84	전북대학교	고창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1983	청주대학교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청주시·괴산군)
198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청원군)
1983	창원대학교	가야문화권 유적 지표조사(진주시·진양·의령군)
1984	동아대학교	가야문화권 유적 정밀조사(고성군)
1984~85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합천댐 수몰지구 지표조사
1984	목포대학교	중서부고도문화권 지표조사(무안·영암군)
1984	인하대학교	서해도서 학술조사
1984~85	전북대학교	김제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1984	청주대학교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옥천군)
1984	충남대학교	고대도시 유적조사
198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권 유적 정밀조사(보은·영동군)
1984	창원대학교	가야문화권 정밀조사(합안군)
1984~85	효성여자대학교	통일신라토기 요지조사
1985	국민대학교	진양대평리 유적 지표조사
1985	국민대학교	영일홍안리 유적 지표조사
1985	국민대학교	강화 불성리 조개더미조사
1985	군산대학교	옥구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1985	계명대학교	가야문화권 유적 정밀조사(교령군)
1985	목포대학교	영암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5	목포대학교	해남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5	목포대학교	중서부고도문화권 지표조사(강진·장흥군)
1985	목포대학교	무안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5	안동대학교	안동댐 수몰지역 지표조사
1985	전남대학교	주암댐 수몰지구 지표조사
1985	충북대학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충남대학교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5	창원대학교	가야문화권 정밀조사
1985	한양대학교	백제유적 지표조사
모	듬	67件

다음으로는 정부당국의 필요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아 대학박물관에서 실시하였던 지표조사는 1975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주·완주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당국의 고도문화권(古都文化圈) 설정에 따른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중서부고도문화권·가야문화권·중원문화권 등에 대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대학박물관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문화권 설정에 따른 지표조사는 전체적인 문화유적의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와 이미 조사파악된 중요한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발굴조사계획이나 유적정비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 지표조사의 성격은 아주 중요하다.

이처럼 정부당국의 전적인 재정지원으로 실시된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정부지원으로 된 조사와 조사기관

문화권명	조사연도	조사기관(대학박물관)	조사지역	비고
중서부 고도문화권	1979	공주사범대학·충남대학교·서울대학교· 원광대학교·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충남·서울·경기·인천·전 남·전북지역의 16개시와 군	지표조사
	1980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	전남·전북지역의 2개군	지표조사
	1982	전남대학교	전남의 1개군	지표조사
	1983	목포대학	전남의 3개군	지표조사
	1984	목포대학	전남의 2개군	지표조사
소 계	5 개년	7개교 참가	6개 시도지역의 24개 시와 군	
가야문화권	1978	창원대학	경남의 3개군	지표조사
	1980	경북대학교	경북·경남지역의 4개군	지표조사
	1981	계명대학교·부산대학교·동아대학교·창 원대학	경남·경북지역의 5개군	지표조사
	1982	부산대학교·동아대학교·창원대학	경남의 8개시와 군	지표조사
	1983	동아대학교·영남대학교·창원대학·효성 여자대학교·부산여자대학·계명대학교	경남·경북지역의 14개시와 군	지표조사
	1984	부산대학교·동아대학교·창원대학	경남의 5개시와 군	정밀조사
소 계	6 개년	8개교 참가	2개 도지역의 34시와 군	
충원문화권	1982	충북대학교·청주대학교·단국대학교	충북의 7개지역	지표조사 정밀조사
	1983	충북대학교·청주대학교·단국대학교	충북의 5개지역	정밀조사
	1984	충북대학교·청주대학교·단국대학교	경기·충북지역의 5개지역	정밀조사
소 계	3 개년	3개교 참가	2개도의 15개시와 군	
합 계		18개교 참가	11개시도의 73개시와 군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가 문화권역에 속하는 지방대학의 박물관이 담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대학박물관이 학술조사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며, 지방사와 향토사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겠다.

II. 발굴 조사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더불어 대학박물관의 대외적인 주요한 활동의 일환으로 알찬 연구성과를 얻어 학계에 기여한 가장 큰 활동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대학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는 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유적의 성격에 따라 골라서 발굴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돋보인다.

1957년 경희대학교에서 서울 암사동 신석기시대 유적(1957년)과 1958년 부산대학교에서 김해 예안리조개더미를 시굴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학박물관에서 정식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최초의 예는 1959년 김정학교수가 이끄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경남 웅천조개더미(貝塚)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웅천조개더미를 발굴조사한 사실은 해방이후 국립박물관 주관으로 발굴조사가 대부분 금관 등, 금으로 만든 찬란한 유물이 풍부하게 나오는 고분에 열중하고 선사유적에 대한 발굴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선사시대의 발굴조사였다는 점에서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의 성격을 가름하는데 학사적으로 갖는 그 의미는 크다.

또한 웅천 조개더미의 발굴조사는 3년후인 1962년부터 국립박물관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고인돌유적에 대한 전국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이북에서도 1960년에 웅기 굴포리유적을 발굴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전체적인 발굴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발굴조사가 있어 왔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형태는 크게 정부기관(국립박물관·문화재관리국)과 대학박물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된 회수는 모두 736회이고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대학박물관과 정부기관의 발굴관계

대학박물관	정부기관	기 타	계
445 (60.5)	270 (36.7)	21 (2.8)	736회 (100%)

위의 〈표 4〉에서 보면, 대학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회수는 445회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발굴에 참가하였던 대학박물관은 40개로 지금까지 10회 이상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던 대학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표 5〉 10회 이상 발굴조사를 실시한 대학박물관

발굴기관(대학박물관)	발굴회수	발굴기관(대학박물관)	발굴회수
고 려 대 학 교	13	연 세 대 학 교	26
경 북 대 학 교	25	영 남 대 학 교	16
경 희 대 학 교	22	원 광 대 학 교	14
공 주 사 범 대 학	12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5
단 국 대 학 교	21	전 남 대 학 교	19
동 아 대 학 교	26	전 북 대 학 교	10
부 산 대 학 교	32	충 남 대 학 교	25
서 울 대 학 교	64	충 북 대 학 교	25
송 실 대 학 교	10	17개교	375

〈표 5〉에서 보듯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64회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이 부산대학교 박물관·동아대학교 박물관·연세대학교 박물관 등의 순서이다.

이는 대학박물관 자체의 학술연구에 관한 충분한 인력의 확보와, 필요한 조사경비 그리고 연구분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전체 회수는 445회로, 이 가운데 10회 이상 발굴조사한 대학박물관은 17개교이고, 모두 합한 회수는 375회로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정부기관인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조사한 관계를 분석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정부기관에서 발굴조사한 현황

정 부 기 관	회 수(%)
중 앙 박 물 관	108(40.0)
경 주 박 물 관	20 (7.4)
광 주 박 물 관	7 (2.6)
부 여 박 물 관	6 (2.2)
공 주 박 물 관	3 (1.1)
진 주 박 물 관	1 (0.4)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25(46.3)
전 체	270(100%)

정부기관에서 발굴조사한 270회 가운데에는 국립박물관이 145회(53.7%)이고, 문화재관리국이 125회(46.3%)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거의가 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국립박물관쪽에서는 문화의 지방확산 정책에 따라 지방의 국립박물관이 차차 발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립박물관에서 196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계획을 세워 고인돌유적을 조사한 사실은 우리나라 발굴사상 기념비적인 사실로 받아 들여진다.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주로 경주지구 유적발굴조사와 중서부 고도문화권 유적발굴조사 그리고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진양 대평리 선사유적 등, 특정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문화재를 행정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학술조사의 하나인 발굴조사를 전체 발굴회수의 20.1%를 실시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관한 체계적인 질서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상을 밝혀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문화재에 관하여 학술적인 연구분야와 행정적인 분야를 이원화시켜 독립된 영역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여 가게 되면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2) 기간별 발굴현황

우리나라에서 있는 최초의 문화재의 조사는 1820년 김정희가 실시한 진흥왕순수비를 들 수 있지 아니할까 한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조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발굴조사에 있어서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학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사람들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발굴조사가 있었으며, 1916년에 조사된 경주 제100호분(「劍塚」)을 비롯하여 거의가 유물이 찬란하고 풍부하게 많이 나오는 고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발굴조사 자체를 학술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분야에는 한사람의 전문가도 없었고, 이러한 조사를 담당할 기관도 없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는 1946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던 有光敎一의 지도아래 경주 호우총(壺朽塚)과 은령총(銀鈴塚)을 발굴하였다. 그러면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를 하였던 기간별 현황을 5년 단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를 하였던 기간별 현황

1955~60	1961~65	1966~70	1971~75	1976~80	1981~85	모	듬
6 (1.3)	28 (6.3)	46 (10.4)	83 (18.7)	102 (22.9)	180 (40.4)	445회	(100%)

〈표 7〉에서 나타난 사실은 1980년대에 들어 전체의 40.4%에 해당하는 많은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토개발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많이 실시됨으로서 발굴조사가 현저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박물관 쪽에서는 1960년대에 몇몇 대학에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하다가 1967년에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참가교들인 서울대·고려대·경희대·충실대·전남대 등 5개교 박물관이 연합발굴단(단장 김정학 고려대학교 박물관장)을 구성하여, 암사동 신석기시대 집터들을 발굴한 것이 처음의 일이다.

이 조사는 대학박물관들의 전문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하지 아니한 비난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튼 1970년대의 중반을 지나면서 발굴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각 대학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발굴조사는 전국의 대학박물관으로 확산되었다.

1970~1985년까지 실시된 발굴조사는 전체 445회 가운데 365회로 82.0%를 차지하여 거의가 이 기간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있었던 구제발굴 성격의 연합발굴은 팔당·소양댐조사·안동댐조사·잠실지구조사·반월공단조사·창녕 계성리 고분군조사·대청댐조사·충주댐조사·몽촌토성조사 등이 있고, 단일팀으로는 영산강유역 수물지역조사·장성댐조사·김해 수가리유적조사·김해 예안리고분군조사·김해 부원동 유적조사 등이 있다.

한편 발굴조사단이 구성되어 연합발굴조사를 실시한 보기는 다음과 같다.

〈표 8〉

연 합 발 굴 조 사

조 사 명	조사연도	참 가 기 관(대학박물관)	유 적 성 격	비 고
암사동 신석기 시대 주거지 발굴	1967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 경희대학교 · 숭실대학교 · 전남대학교	신석기시대집터	대학박물관협회 최초의 발굴
팔당댐 수물지역 발굴조사	1972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단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 송진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국립박물관 · 문화재관리국	신석기 · 고인돌 · 돌무지무덤	소양댐수물지역 팔당댐수물지역
안동댐수물지역 발굴조사	1972	경북대학교 · 문화재관리국	고인돌 · 고분	안동댐수물지역
경주지구고분 발굴조사	1973	고려대학교 · 경북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대학교 · 영남대학교	고 분	경주개발계획으로 구급발굴
잠실지구발굴조사	1974 ~ 75	고려대학교 · 단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 송진대학교 · 전남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국립박물관 · 문화재관리국	고 분	잠실신시가지조성으로 구급발굴
창녕계성리 고분군발굴조사	1976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고 분	구마고속도로건설공사로 구급발굴
대청댐수물지역 발굴조사	1977 ~ 78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문화재관리국	구석기한데유적 · 고인돌 · 고분 · 진물터	
반월지구 · 발굴조사	1978	건국대학교 · 경희대학교 · 단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 송진대학교 · 문화재관리국	고인돌 · 성곽조개더미 · 고분	반월공업단지 조성
충주댐수물지역 발굴조사	1982 ~ 85	건국대학교 · 고려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단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청주사범대학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양대학교 · 공주박물관	구석기 ~ 조선	연합발굴사상 최대규모의 발굴조사단
몽촌토성 발굴조사	1985	단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 송진대학교 · 한양대학교	토 성	올림픽행사로인한 발굴조사

〈표 8〉에서 보면, 10차례의 연합발굴조사가 있었고 여기에는 27개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는 서울대학교가 7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단국대학교 · 문화재관리국 등의 순이다.

무엇보다도 충주댐 수물지역의 발굴조사에는 1982~1985년까지 4개년에 걸쳐 60개지역에 35개팀(17개기관)으로 구성된 발굴조사단이 참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발굴사상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기간에 최대의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대학박물관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던 시점을 보면, 1960년대에는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공주사범대학 · 단국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참가하였고, 1970년대에는 원광대학교 · 전남대학교가, 1970년대 후반에는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계명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박물관 등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서 점차 대학박물관이 넓게 발굴 실시를 한 것으로 관찰된다.

(3) 유적의 성격에 따른 발굴현황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445회를 유적의 성격에 따라 한데유적(유물산포지포함) · 동굴유적 ·

집터·조개더미·고인돌·선돌·건물터·절터·성곽·고분·기타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대학박물관에서 발굴한 유적의 성격과 수

한 유	매 적	동 유	굴 적	집 터	조 개 더 미	고 인 돌 선 돌	건 물 터	절 터	성 곽	고 분	기 타	모 듸
46 (10.3)		22 (4.9)		43 (9.7)	29 (6.5)	51 (11.5)	17 (3.8)	55 (12.4)	25 (5.6)	128 (28.8)	29 (6.5)	445 (100)

〈표 9〉에서 보면, 고분이 128회로 가장 많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다음이 집터 55회(12.4%), 고인돌·선돌 51회(11.5%) 등의 순이다.

고분이 가장 많이 발굴조사된 것은 문화재도굴에 따른 수습발굴의 이유도 있거니와 해방이전부터 실시된 발굴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고분으로 해방이후에도 대학박물관에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 한다.

또한 고분에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학술적인 연구도 큰 비중이 있지만, 출토되는 유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유물중심의 발굴조사는 아니었나 하는 점도 관찰된다.

다음으로는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의 성격을 발굴조사 시기와 비교하여 보면, 1960년대에는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박물관에서는 유적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전분야에 걸쳐 실시하였던 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박물관(관장 손보기교수)에서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 연차발굴로 공주 석장리·제원 점말용굴·단양 상시 등 구석기유적만 조사하였는데 이것은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에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방법에서 학문적·학술적 성과를 인정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발굴조사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발굴책임자의 전공에 따라서 전공영역 분야별로 발굴조사가 실시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찾아지는 특징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분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회,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15회,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15회로 전체 128회 가운데 49회이며, 38.3%를 차지한다.

이처럼 고분유적은 영남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에 갖는 관심분야의 경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며, 아울러 이들 대학이 있는 지역에 있던 역사적 시대인 신라 가야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의 해석에 있어 문헌사학으로는 구명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의 발굴조사는 역사학의 연구분야에, 고고학의 연구성과가 수용되어 올바른 역사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아주 바람직한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테유적에서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17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11회이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64년 이래 연차적으로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을 발굴조사한 것이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여주 혼암리·양양 오산리 등의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세째, 동굴유적의 발굴조사는 거의가 구석기유적인데, 제원 점말용굴·단양 상시동굴 등을 발굴조사한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11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회에 걸쳐 청원 두루봉동굴·청원 큰동굴 등을 발굴한 충북대학교 박물관이다.

네째, 조개더미는 거의가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대부분 남해안지역에 있는 것이며, 발굴조사기관을 살펴보면, 지리적인 조건 및 전공분야의 관심에 따라서 조사된 경향이 살펴진다.

가장 많은 발굴조사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0회이고, 그 다음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7회, 동아대학교 박물관·제주대학교 박물관이 각각 3회씩이다.

다섯째, 고인돌·선돌유적은 큰돌(巨石)문화의 한 분류로 분포상으로 볼 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빼를 지어 많이 있으며, 고인돌이 다른 유적보다도 외형적으로 쉽게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큰 관심을 가져 왔던 분야이다.

고인돌발굴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0회에 걸쳐 실시하여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경희대학교 박물관·경북대학교 박물관의 순이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이처럼 많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전남지역에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다, 대초댐·장성댐·동북댐 등 많은 댐을 만들면서 생기는 수몰지역 조사의 일환으로 구급발굴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선돌은 유물의 성격상 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라 일찍부터 학계에 보고되어 관심을 끌었지만, 발굴조사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1977년에 필자가 대청댐 수몰지역 발굴조사를 하면서, 옥천 안터선돌과 청원 아득이 선돌을 발굴하여 성격과 시대를 밝힌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충주댐 수몰지역 발굴조사에서도 제원 월굴리·제원 황석리 그리고 중원 무릉동 선돌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이러한 선돌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큰돌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방법의 일환이기도 하며, 고인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같은 시기의 축조문제,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의 성격규명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여섯째, 절터는 모두 55회에 걸쳐 발굴조사가 되었으며, 이 가운데 단국대학교 박물관이 10회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만복사지를 발굴한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7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충남대학교 박물관이 각각 6회씩으로 이들 4개교의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것이 전체의 52.8%를 차지하여, 발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학자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회 이상 발굴조사를 실시한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유적의 성격에 따른 발굴조사 현황과

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10회 이상 발굴한 대학박물관과 유적의 성격

유적의 성격 발굴기관	한 유	배 적	동 유	굴 적	집 터	조 개 미	고 인 물 선	건 물 터	절 터	성 곽	고 분	기 타	모 듬
고려대학교					3	3	1	2			4		13
경북대학교					2		5		1	1	15	1	25
경희대학교	4				3		6				5	4	22
공주사범대학								1	2	2	7		12
단국대학교						1	1	1	10	2	4	2	21
동아대학교			1			3			2	5	15		26
부산대학교					2	10	1				19		32
서울대학교	17		1		14	7	4	1		4	12	4	64
승실대학교	1				7					1	1		10
연세대학교	11		11			1	2					1	26
영남대학교	4		1		1						10		16
원광대학교					1			2	4	3	1	3	14
이화여자대학교							1		6		7	1	15
전남대학교					3	1	10		1	1	2	1	19
전북대학교					1			1	7		1		10
충남대학교							2	4	6	4	3	6	25
충북대학교	4		8				4	5		1	2	1	25
모 듬	41		22		37	26	37	17	39	24	108	24	375

〈표 10〉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전체 회수 445회 가운데 10회 이상을 발굴조사한 17개 대학박물관에서 375회(84.3%)의 발굴조사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몇몇 학교에 국한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전문분야의 학술연구인 까닭에 전문화된 경향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활성화된 연구 분위기가 진작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박물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회수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유적의 성격에서도 가장 폭 넓게 발굴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대학교에 고고미술사학과(고고인류학과)가 설치되어 다른 대학보다도 전문인력을 양성 하면서 초기에 보편적인 여건 아래에서 발굴조사를 여러 분야에 걸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고고인류학과)를 개창한 김원용교수의 학문분야의 개척자적인 위치도 있지만, 김교수의 폭넓은 학문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겠다.

다음은 앞에서 분류한 10가지의 유적성격에 따른 발굴조사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방법으로, 10회 이상 발굴조사를 실시한 대학박물관의 발굴회수 합계인 375회와,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전체 445회와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10회이상 발굴기관과 발굴유적의 비교

유적성격 회수와 %	유적성격												
	한 유	대 적	동 유	굴 적	집 터	조 개 미	고 인 돌 선 돌	전 물 터	절 터	성 곽	고 분	기 타	모 듬
전체 발굴 회수	46		22		43	29	51	17	55	25	128	29	445
10회이상발굴심 시한 17개 기관 의 발굴회수	41		22		37	26	37	17	39	24	108	24	375
%	89.1		100		86.0	89.7	72.5	100	70.9	96	84.4	82.8	84.3

위의 〈표 11〉을 살펴보면, 전체 발굴회수 445회에 대한 10회 이상 발굴조사한 17개 대학박물관의 발굴회수 375회의 백분율 84.3%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한대유적·동굴유적·집터·조개미·전물터·성곽·고분 등이다.

이것은 한대유적의 9가지의 유적성격을 지닌 유구의 발굴은 거의가 집중된 발굴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적의 성격으로 보아 다른 유적의 발굴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 학계의 전문화·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자못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4) 유적의 시대별 발굴현황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을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유적의 시대별 분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모 듬
57 (12.8)	32 (7.2)	89 (20.0)	31 (7.0)	162 (36.4)	21 (4.7)	25 (5.6)	28 (6.3)	445회 (100%)

위의 〈표 12〉에서 보면 삼국시대가 162회(36.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동기시대 89회(20.0%), 구석기시대 57회(12.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을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분이며, 다음으로 청동기시대로 그 당시 사회의 무덤이었던 고인돌유적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유적의 성격무덤이 가장 많은 까닭은 그 당시 사회구조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무덤에서는 풍부하게 출토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무덤을 발굴할 때에 특히 삼국시대에 있어서 금관이나 꾸미개 등의 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배자 계층의 무덤에만 관심이 집중되지 아니하겠끔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수적으로 대다수이며, 생산을 담당하였던 민중계층의 사회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발굴되지 아니하여, 당시 사회를 복원하거나 재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1976년부터 5년간 발굴조사한 김해 예안리 고분군은 4~7세기 사이의 신라·가야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그 당시의 지배계층은 물론 민중의

문화와 사회연구에 있어 더 없이 좋은 자료로서, 앞으로 이 분야의 발굴조사에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석기시대의 유적발굴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7개교에서 실시하였는데, 전체 57회 가운데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23회로 40.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충북대학교 박물관 12회(21.1%), 서울대학교 박물관 8회(14.0%)의 순이다.

신석기시대는 전체 32회에 걸쳐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연차 발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양양 오산리유적을 비롯하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유적등 19회로 59.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남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파괴될 위치에 처하여 있던 김해 수가리유적을 구제발굴한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4회(12.5%)에 걸쳐 발굴하였다.

철기시대의 유적은 80년대 초까지 그렇게 활발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 충주댐 수몰지역 조사의 일환으로 증원 하천리집터(경북대학교)가 발굴조사된 것을 비롯하여, 횡성 둔내집터(강원대학교 박물관)·양양 가평리유적(강릉대학 박물관)·가평 이곡리(전국대학교 박물관)·마장리유적·춘천 중도유적(강원대학교 박물관)·수원 서둔동유적(충실대학교 박물관) 등 상당히 많이 찾아지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의 발굴조사는 거의가 절터나 원터·창고터 등의 건물터이다. 이렇게 발굴조사를 실시한 여러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 책임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발굴조사된 유적의 시대 및 성격이 두드러지게 가름되어지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60년~1970년대에 있었던 발굴조사가 점차 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것으로 매우 좋은 경향이다.

(5) 행정구역별 발굴현황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전국 시·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1개 시·도별로 자료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행정구역별 발굴유적수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	모듬
36	24	48	25	87	48	26	27	9	57	58	445
(8.1)	(5.4)	(10.8)	(5.6)	(19.6)	(10.8)	(5.8)	(6.1)	(2.0)	(12.8)	(13.0)	(100%)

〈표 13〉에 의하면 충북지역에서 87회에 걸쳐 19.6%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가장 많았다.

이것은 금강과 남한강의 상류지역이라는 입지조건과, 석회암지대가 풍부한 지질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구석기시대 유적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에 집중적으로 발굴조사된 메다가, 대청댐·충주댐의 건설에 따른 구제발굴의 성격을 띠고 수몰지역에 대하여 연합발굴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에서 전국지역별로 발굴조사한 분포관계를 살펴 보면,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전북지역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걸쳐 있으므로 가장 넓게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은 단국대학

교 박물관이 6개 시·도에서 조사를 하였다.

그 나머지 대학박물관은 거의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발굴조사를 하였고, 서울지역의 대학박물관들은 경기지역이나 지방에서 많은 발굴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당국의 고도문화권 설정으로 경주·공주·부여지역의 발굴조사는 거의가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Ⅲ. 각 대학박물관별 조사활동 현황

이 단락에서는 각 대학박물관별로 조사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는 조사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박물관들이 서로 협조하여 보다 활성화된 연구가 진작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대학박물관의 선별기준은 10회 이상 발굴조사를 실시한 대학박물관을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한다.

(1) 고려대학교 박물관

대학박물관에서 제일 처음 발굴조사한 응천조개더미를 1959년부터 3차에 걸쳐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초기에는 광주 명일리집터·가락리집터 등 선사시대 유적을 주로 발굴하였다.

그 이후 서울 가락동 백제고분·경주 황남동 신라고분·충주댐 수몰지역의 청동 북창터·제원 안음역지 등 역사시대의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2) 경북대학교 박물관

1960년 칠곡 약목리 삼국시대 고분을 발굴조사한 이래 발굴조사 전체의 60%가 고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다음은 큰돌문화의 한 분류로 대구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에 관한 것이다.

최근 충주댐 수몰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중원 하천리에서 조사된 초기 철기시대의 집터유적은 「중원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더 없이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3) 경희대학교 박물관

1957년 서울 암사동 신석기유적을 시굴한 것이 한국 대학박물관에서 이 방면에 실시한 최초의 학술조사이며, 그 이후 영암 내동리 독무덤을 발굴조사하여 훌륭한 발굴성과를 얻었다.

한편 서울 면목동·연천 전곡리 등 구석기시대의 유적도 조사하였으며, 충주댐 수몰지역 조사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주로 선사시대의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4) 공주사범대학 박물관

대학이 자리한 위치적 조건으로 인하여 발굴조사한 유적의 90% 이상이 백제시대의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고분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1983년부터 공산성을 연차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백제문화연구소와 협동으로 활발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5) 단국대학교 박물관

학교당국의 많은 지원으로 활발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66년부터 실시한 지표조사는 초기에 군을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별로 경북 선산·상주, 충북 괴산·청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삼국시대 강역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도 실시하여, 단양 적성비·중원 고구려비·중원 봉황리 마애불 등을 찾았는데, 이는 학계의 큰 업적으로 해석된다.

발굴조사는 1967년 사천 구평리 조개더미를 발굴한 이래 초기에는 몇몇 선사유적도 있었지만, 1974년부터 양양 진전사지를 6차례 걸쳐 조사하였다. 잠실지구 발굴조사·팔당댐 수몰지역 발굴조사·충주댐 수몰지역 발굴조사·몽촌토성 발굴조사 등 연합구급발굴에 많이 참가하였다.

(6) 동아대학교 박물관

1969년 부산 북천동고분을 발굴조사하여 큰 성과를 얻은 다음, 함양 상백리·고성 송천리·창녕 계성리유적 등 주로 고분을 많이 발굴조사하였다. 1980년 김해 부원동유적을 조사하여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이 지역의 과도기적 문화규명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산 전지리토성·진해 구산성지 등의 성곽과 울주 윤월사지·합천 영암사지 등 절터를 발굴조사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 부산대학교 박물관

역사·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 가야영역과 해안을 끼고 있는 관계로, 가야시대의 고분과 신석기시대 조개더미의 조사가 전체 발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58년 김해 예안리 조개더미를 시굴한 이래, 김해 농소리·수가리, 부산·다대포, 창원 성산, 부산 울리, 삼천포 늑도의 조개더미를 발굴조사하였다.

고분조사는 부산 오류대·화명동·북천동·당감동, 김해 예안리, 울주 화산리·양동유적 등에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많은 결정적인 자료를 얻고 있으며, 김해 예안리 고분의 사랍뼈, 부산 북천동 고분에서 나온 갑옷 등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8) 서울대학교 박물관

대학박물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64회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박물관과 고고미술사학과 사이의 협동연구에 대한 연계가 잘 이루어져 활발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발굴조사에 대한 것을 보면, 유적의 성격이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넓은 분야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적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음이 관찰된다.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연천 전곡리·공주 마암리동굴을 비롯하여, 양주 수석리집터·광주 미사리유적·부산 동삼동 조개더미·울주 신암리유적·서울 압사동 유적·양양 오산리유적·여주 혼암리유적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역사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광산 신창리 독무덤·서울 풍남리토성·석촌동 고분·몽촌토성 등이 발굴되었다.

(9) 숭실대학교 박물관

1966년 서울 역삼동집터를 발굴조사한 이래 거의가 선사시대유적 가운데서도 민무늬토기시대의 유적을 집중 발굴조사하고 있다.

수원 서둔동유적은 1979년부터 4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이 유적은 중부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상(文化相)을 규명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유적으로 해석된다.

(10) 연세대학교 박물관

1964년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을 발굴조사한 이래 26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발굴조사는 학계에 깊이 뿌리 내린 식민지사관의 허구성을 밝혀 주었을 뿐만아니라, 우리 역사의 상한을 신석기시대에서 구석기시대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발굴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고고학사에 큰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석장리유적을 비롯한 제원 점말 용굴·단양 상시동굴·단양 도담금굴 등 구석기시대의 유적 발굴이 전체 발굴의 88.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느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 보다는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의 경비와 인력동원이 필요한 이런 구석기유적의 발굴조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대학박물관 자체의 여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있어 개선하여야 될 점으로 생각한다.

(11) 영남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된 유적의 성격은 거의가 고분이고, 최근에 구석기유적을 비롯한 선사유적을 조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8년 창녕 계성리고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경산 북서동·노변동·임당동 고분, 창녕 계남리·경주 황남동고분·칠곡 구암동고분이 조사되었다. 구석기시대유적은 1973년 제주 빌레못동굴유적·연천 전곡리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12) 원광대학교 박물관

1974년 미륵사지 동탑터를 마한·백제연구소와 같이 발굴조사한 이래, 건물터·절터·성곽 등을

고루 발굴하였다.

1983년 고창 아산댐 수몰지구에서 가마터·절터·건물터·고인돌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13)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63년부터 안동지역을 조사한 이래, 조탑동고분·중가구동고분·전옥산사탑지·개목사전탑지·임하동탑지·순흥 어숙묘 등을 발굴조사하였으며, 유적의 성격으로는 고분과 절터가 대부분이다.

팔당댐 수몰지역조사·잠실지구 발굴조사·충주댐 수몰지역 발굴조사 등 연합구제 발굴에도 참가하였다.

(14) 전남대학교 박물관

1964년 담양 한수동 조선시대 가마터를 발굴조사한 이래, 19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고인돌유적이 10회로 가장 많은데, 이는 고인돌이 전남지방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다, 영산강 수몰지역 조사 및 대초댐·동북댐·장성댐 수몰지역 조사의 일환으로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5) 전북대학교 박물관

1979년 남원 만복사지를 발굴조사한 이래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복사지는 7차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최근에 그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

한편 1985년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된 남원 세전리유적은 철기시대의 집터유적으로 발굴 성과가 훌륭하여, 이 시대의 문화규명에 있어 중요한 유적과 유물로 해석된다.

(16) 충남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의 고대산성 분포조사와 호서일원에 걸친 고대도시 유적조사는 큰 성과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보고되면 학술적인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발굴조사는 1975년 김제 벽골제를 시작으로 2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발굴된 유적의 성격은 건물터·절터·성곽·고분 등 골고루 하였으며, 고도문화권 설정에 따라 부여지역에서 많은 발굴을 하고 있다.

구제발굴로 대청댐 수몰지역과 충주댐 수몰지역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17) 충북대학교 박물관

1976년 청원 두루봉 구석기동굴유적을 발굴조사한 이래, 25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고, 전체 발굴회수 가운데 구석기유적이 50%나 차지하며, 그 밖에도 고인돌·선돌 등 충북지방의 선사문화

규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발굴사상 최대규모로 실시된 충주댐 수몰지역과 중부고속도로의 지표·발굴조사를 주관하였으며, 대청댐 수몰지역 조사도 하였다.

충주댐 수몰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양 수양개 구석기유적은 발굴규모나 발굴성과 면에서 세계적인 유적으로 해석된다.

IV. 학술적 간행물 발간

대학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학술관계의 일은 앞서 설명한 지표·발굴조사 밖에도 발굴보고서나 도록·소장유물목록 등을 간행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것이다.

도록은 이제 거의 모든 대학박물관에서 간행하였다.

소장유물목록은 1978년 단국대학교에서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所藏目錄》이 나온 것을 비롯하여, 1979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大學校 博物館 所藏品目錄》을, 1981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淑明女子大學校 博物館 所藏品目錄》, 1982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品目錄》을 간행하였다.

이것은 대학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의 현황 파악은 물론, 관련분야의 학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안내〉 책자를 3회에 걸쳐 만들었으며, 한림대학에서는 박물관의 발굴성과와 연구동향을 알리는 〈한림대 박물관보〉를 만들었고, 서울시립대학 박물관에서는 단국대학교에서는 〈박물관기요〉 〈박물관 회보〉를 만들어 간단한 연구논문 및 박물관의 동향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꽤 고무적인 일로 생각되어 앞으로 모든 대학박물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음은 각 대학 박물관에서 부정기적으로 발굴보고서를 펴내는 것 이외에, 정기적 간행물인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韓國考古學年報》와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佛敎美術》을 소개하고자 한다.

《韓國考古學年報》는 1974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김원용교수에 의해 편집되어 간행된 다음, 지금까지 연보(年報)로 12회에 걸쳐서 나왔다.

이 책은 한해동안의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과 연구동향·연구실적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편집내용은 발굴조사성과·학술대회 및 발굴조사일지·연구문헌 발간관계·발굴조사 가운데 중요한 조사를 개보의 성격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佛敎美術》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미술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결과를 소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문학술지이다.

지금까지 8집이 나왔는데 1집은 전문학술논문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2집부터는 특집으로 꾸며져 있어 더욱 내용이 알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잡지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학계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내용은 각 대학

박물관에서 한 발굴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기 여러 분야의 조사보고서들이기에 따로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보고서(단행본)들 가운데서 주요한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대학박물관 주요 발굴보고서

대 학 박 물 관	보 고 서	보 고 년 도
강릉대학	《襄陽 柯坪里住居址 發掘報告》	1984
강원대학교	《屯內》	1984
경북대학교	《義城 長林洞 廢古墳群》	1981
경상대학교	《陝川 玉田古墳群 1次發掘調査 概報》	1986
계명대학교	《高靈 池山洞 古墳群》	1981
공주사범대학	《公山城》	1982
동국대학교	《盤龜臺》	1985
동아대학교	《金海 府院洞遺蹟》	1981
	《上老大島》	1984
목포대학	《靈岩 靑龍里·長川里支石墓群》	1984
부산대학교	《金海 禮安里古墳群(I)》	1985
	《金海 水佳里貝塚(I)》	1981
부산여자대학	《昌原 三東洞甕棺墓》	1984
서울대학교	《欣岩里》(I~IV권)	1973~78
	《鰲山里遺蹟》	1984
	《鰲山里遺蹟(II)》	1985
연세대학교	《상노대도》	1984
	《두루봉 9굴 살림터》	1983
영남대학교	《皇南洞 古墳發掘調査概報》	1975
이화여자대학	《廣州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1986
전남대학교	《光州 松岩洞住居址·忠孝洞支石墓》	1979
전북대학교	《萬福寺》	1986
제주대학교	《郭支貝塚》	1985
청주대학교	《淸州 興德寺址 發掘調査報告書》	1986
충남대학교	《定林寺址》	1981
	《木川土城》	1984
충북대학교	《淸原 두루봉洞窟 舊石器遺蹟 發掘報告書(I)》	1983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84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 綜合報告書(5권)》	1984

이들 보고서 이외에도 많은 단행본·보고서가 있으나, 또한 각기 학회지·학술지·기관지에 발굴 보고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공주 석장리구석기발굴결과는 주로 《韓國史研究》에, 공주사범대학은 《百濟文化》에, 충남대학교는 《百濟研究》에, 원광대학교는 《馬韓·百濟文化研究》를 통하여 발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보고내용들은 각기 분야와 문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최근 김원용교수가 쓴 《第三版 韓國考古學概說》에 소회되어 문화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맺 음 말

위에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한 대학박물관들의 1985년까지의 연구활동과 조사활동을 통계를 통하여 해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1960년대에 일어난 각 대학박물관의 조사활동이 산만하게 펼쳐졌으나, 연세대학교에서만은 구석기분야로 집약적인 조사활동을 펴 왔다. 이러한 조사경향은 70년대에 들어 와서야 각 대학박물관의 책임자들의 연구분야도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발굴조사도 자기 특정분야로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우기 해방후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문화와 그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데에는 전체의 736건 가운데, 445건(60.5%)을 차지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각 대학박물관의 학술적인 기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자기 연구활동과 함께 발굴보고서를 발표하여 학계에 기여하며, 학문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에 참여한 팔당댐·대청댐·충주댐·주암댐 등 수몰지구와, 중부고속도로의 문화유적 조사와 같은 대단위의 조사활동에는 각 대학박물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에서 맡겨진 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학박물관 관계자들은 자기 강의에 충실하면서도 주암댐·합천댐 수몰지구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국토개발로, 없어져 가는 우리 선인들이 남긴 문화유적의 발굴과 그 해석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쌓여서 전통문화의 확립과 그 체계화가 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박물관이 생긴지 보성전문학교를 시발로 한다면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대학박물관의 현실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본다. 오히려 늦은 감이 든다.

각 대학당국에서는 기성회비로 주는 그 조그만 액수의 예산으로 만족하여야 하는지, 아직까지 설치령조차 마련하여 주지 못하는 문교부 당국자들은 대학박물관의 발전에 어떤 위치로 있었는지? 이제 깊이 생각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계제에 와 있다.

이것이 늦으면 늦을 수록 우리 문화의 연구에 늦은 결을마를 갖게 할 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